



사진 1



사진 2



사진 3

초[燭]

- 우리 조상들이 사용한 여러 초들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초에는 자초[刺燭]·홍대초[紅大燭]·포초[布燭]·밀초[蜜燭]·용초[龍燭]·화초[畫燭]·내점초[耐攄燭]·풍전초[風前燭]·만리초[萬里燭]·성초[聖燭]·지초[脂燭]·잡초[雜燭]·마초[麻燭] 등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

위에서 언급된 각각의 초를 살펴보자. 먼저 자초[刺燭]는 갈대를 베로 감싸 묶고 그 표면에 납[蠟]을 바른 가장 원시적인 초로, 연기와 그을음이 심했다고 한다. 중국 고대의 예법을 정리한 《주례(周禮)》에서 사헌씨(司煢氏)가 제사 때 바쳤다는 분촉(墳燭)이 그 원형일 것으로 추측된다. 초목을 다발로 묶은 해[거화(炬火)]의 형태에 싸리로 심을 하고 베로 얹어맨 다음, 겉에 엿과 꿀을 발라 불을 밝힌 것이다. 분촉에서 엿과 꿀 대신에 밀랍을 발라 개량한 것이 바로 자초이다. 조악하여 나중에 밀초로 대체 된다.

홍대초[紅大燭]는 포초[布燭]의 하나로, 다섯 새의 거친 베[五升布]에 붉은 물을 들인 납[蠟]을 발라 길이 1척(尺) 보다 크게 잘라 만든 초이다. 여기에서 '새'는 피륙의 날을 세는 단위로서, 그 수가 클수록 피륙의 직조(織造) 밀도가 높다. 다섯 새의 베면 의복으로는 쓸 수 없는 매우 성글고 거친 직조이다. 홍대초는 고려 때부터 조선 초까지 궁궐이나 사찰 등 주로 상류층의 길·홍사에 두루 쓰였던 것으로, 조선 태종(太宗) 때 그 사용을 금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태종은 전국의 길례(吉禮)와 흉례(凶禮) 때 홍대초 사용을 금하고, 대신 햇불[송거(松炬)]을 쓰도록 하였다. 비용만 허비하고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다음 왕인 세종(世宗)은 승정원(承政院)을 통해 다시 포초(布燭)을 바치라는 명을 내린다. 태종의 검약을 숭상했던 뜻을 받들면서도 이런 명령을 내린 까닭은, 주로 사리나무 햇불[炬炬]이 괄하기가 쉬워서 잠깐이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탄 불뚱이 마구 떨어져 혹 휘장에 연소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다만, 전대의 홍대초는 아니라 하더라도 납[蠟]을 오승포(五升布)에 바른 포초(布燭)를 매일 대전(大殿)과 동전(東殿)에 각기 1자루씩 바치라고 한 것이다. 여기에서 납[蠟]을 오승포(五升布)에 바른 것이 포초(布燭)였고, 다시 이 포초에 붉은 물을 들여 길이 1자 보다 크게 자르면 홍대초가 되는 것이다.

밀랍의 밀초[蠟燭]는 황밀초[黃蠟燭]와 백밀초[白蠟燭]가 있다. '황초'라고도 하는 황밀초는 담황색의 반투명 색채를 띠며, 봉밀을 물에 끓여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밀랍을 판 위에 놓고 굴대로 굴려 원통형으로 만든 후 굴대를 빼고 심지를 끼워 마무리 한 것이다. 밀초는 대부분 이와 같은 굴림법에 의해 만들었지만, 조선 후기에는 밀랍을 녹여 대통 속에 넣어 굳히는 주축법(鑄燭法)도 이용하였다. 백밀초의 백랍은 황밀을 고아 장치에 걸러 짜내는 정제과정을 거쳐서 만들기도 했지만, 사철나무[冬靑樹]나 광나무[女貞木:물푸레나무과의 상록 활엽 교목], 쥐똥나무에 서식하는 백랍충(白蠟蟲)의 분비물을 가열하여 만들기도 하였다. 사철나무껍질벌레과의 곤충인 백랍충 수컷의 애벌레가 숙주 식물에 붙은 부분에 백색 납질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것을 채취하여 백랍의 원료로 쓴 것이다.

사진1) 목룡초[木龍燭]// 조선시대// 밀지름 5cm, 높이 41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2) 밀초[蜜燭] - 용초[龍燭]// 조선시대// 지름 3.4cm, 높이 16.3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3) 밀초[蜜燭] - 화초[畫燭]// 조선시대// 밀지름 4.5~5cm, 높이 31.5~42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 4



사진 5



사진 6



사진 7

용초[龍燭]는 백랍을 주홍(朱紅) 안료로 물들여 용을 양각한 것이며, 화초[畫燭]는 백랍을 물들여 모란을 장식한 밀초의 하나이다. 용초는 고급스럽고 너무 귀해 주로 궁중이나 사찰에서 사용하였으며, 화초는 조선후기 민간에서 혼례 때 사용하였다. '화촉(華燭)'이라 하여, '화촉을 밝히다'는 말 자체가 혼례의 상징으로 쓰이게 되었다. 조선후기 혼례복이 관복을 착용한 것처럼, 일반 서민에게도 평생 한 번, 그것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인 혼례식만큼은 신분적 질서를 뛰어넘어 호사를 누릴 수 있게 한 것이다. 내점초[耐點燭] 또는 내점랍초[耐點蠟燭]는 황밀(黃蜜)과 송지(松脂), 회화나무 꽃[회화(槐花)] 각 1근과 속돌 4냥을 함께 녹여 등심포(燈心布)로 심지를 만든 것으로, 하루 종일 켜도 한 치 정도밖에 달지 않아 내점초라는 명칭을 얻었다. 속돌 또는 부석(浮石)이란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이 갑자기 식어서 된 다공질(多孔質)의 가벼운 돌로, 경석(輕石) 또는 수포석(水泡石)이라고도 한다.

풍전초[風前燭]는 마른 옷칠(乾漆)· 짙은 실고사리[海金沙]· 질산칼륨[硝石]· 유황(硫黃) 각 1냥과 황밀· 검은 콩가루(黑豆)· 역청[瀝青: 여기서는 송지(松脂)의 별칭] 각 2냥을 함께 사용하여 만들었다. 먼저 황밀과 역청을 녹여서 즙을 만든 다음, 나머지 재료와 함께 반죽하여 낫은 베(舊布)를 불 위에 놓아 굳혀 초 심지를 만들어 불을 붙이면 바람이 불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홍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山林經濟)》〈잡방(雜方)〉 편에는 접시꽃 줄기[蜀葵]를 초 심지로 사용하면 비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다고 《神隱記》의 내용을 들어 풍전초를 소개하고 있다.

만리초[萬里燭]는 밀(蜜) 1근에 노란색 민들레꽃(黃花地丁)· 주염꽃(阜角花)· 송화(松花)· 회화나무꽃(槐花) 각 2전을 함께 넣어 달여서 찌꺼기를 걸러내고, 대암풀[白菴: 난초과의 자란(紫蘭)] 2전을 넣어 붉은 기운이 돌 때 식혀 만든 초로서, 만 리를 켜고 갈 수 있다고 하여 만리초라 하였다.

성초[聖燭]는 황밀· 송지(松脂)· 다진 회화나무 열매(槐角子) 각 1근과 속돌[水泡石] 8냥, 단풍나무의 진[白膠香] 2냥을 함께 끓여서 7, 8치 정도의 작은 마디 대통에 부어 굳힌 것으로, 가운데 심지는 따로 박지 않고 초 끝에만 살짝 심지를 꽂아 불을 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성초 한 자루에 불을 켜면 약 10~20일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지초[脂燭]는 송진이나 밀랍을 섞어서 만든 보다 좋은 초가 있지만, 소나 돼지기름을 이용해 만든 우지초[牛脂燭]· 돈지초[豚脂燭]가 주로 이용되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나 돼지의 지방을 잿물[灰汁]에 넣고 끓여 찌꺼기 버리기를 서너 번 반복하여 깨끗한 기름을 걸러 낸 다음, 반으로 쪼갠 대통에 넣어 끈으로 묶어 굳힌 것으로, 심지는 면포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지초는 불에 잘 녹는 특성이 있어 빨리 달고 해졌지만, 특히 충남 공주지역의 우지초가 품질이 좋았다고 한다. 그 비법은 기름 찌꺼기를 걸러내는 요령에 있었다고 하며, 더러 초의 겉면에 붉은 물을 들이고 금박(金箔)을 입힌 것도 있다.

잡초[雜燭]는 부들의 꽃가루[蒲黃]와 회초리나무기름[灌油]을 섞어 만든 것, 황경피나무 가루[黃蘗末]와 참기름 찌꺼기를 섞어 만든 것, 그리고 쌀뜨물과 기름찌꺼기로 만든 초가 있었다.

마초[麻燭]는 삼대[麻莖]를 말려서 가지를 잘라 몽둥이 모양(棒狀)으로 만들고, 귀리[燕麥] 겨[糠]를 물과 버무려 삼대에 발라 말린 것이다. 그 길이가 1m 안팎 정도 되었다. 주로 함경도의 화전민(火田民) 촌이나 여진계(女真係)의 재가승(在家僧) 촌락에서 사용되었다고 한다. 가옥 실내의 토벽에 구멍을 뚫고 이를 넣어서 불을 붙여 사용한 것이다. 아래쪽에는 마초에서 떨어지는 재(灰)를 받치기 위해 길이 120cm 내외의 통나무 통을 받쳐 놓기도 하였다. KEA

사진 및 자료 /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삼성미술관 리움(Leeum), 온양민속박물관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4) 밀초[蜜燭] - 화초[畫燭]// 조선시대// 밀지름 4.5, 높이 22// 한국등잔박물관
사진5) 밀초[蜜燭] - 백랍초[白蠟燭]// 조선시대// 밀지름 2.5~3cm, 높이 22.5~24.5cm// 온양민속박물관
사진6) 우지초[牛脂燭]// 조선시대// 밀지름 2.5cm, 높이 23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7) 우지초[牛脂燭] 및 금박우지초[金箔牛脂燭]// 조선시대// 밀지름 2.5~3cm, 높이 15.5~21.5cm// 온양민속박물관